



한국 육상은 사랑을 싣고



“아시아를 넘었다” 이보다 더 자랑스러울 수 없다. 한국 여자 육상의 대들보 이연경(가운데)이 여자 허들 100m 결선에서 힘차게 허들을 넘고 있다. 이연경은 8명의 선수들 중 가장 먼저 골인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광저우(중국) | 연합뉴스

대한민국 메달리스트	
25일(목) 오후 10시 20분 현재	
금메달 (1개)	이름/종목/출생/소속/키/몸무게/주요경력
	이연경 육상 여자 100m 허들 •1981. 4. 15/안양시청/173cm/62kg/2006 아시아게임동메달 2010전국선수권 금메달
은메달 (1개)	육상 : 남자 10종 경기 김건우
동메달 (4개)	축구 : 남자 구자철 외 19명 공수도 : 남자 67kg급 이지환 레슬링 : 여자 55kg급 안태은 : 여자 자유형 48kg급 김형주

한국육상 사흘 연속 골드 레이스



(25일 경기종합)

광저우아시안게임 폐막을 이틀 앞둔 25일에도 육상의 전선이 빛났다. 그러나 한국은 이날 전체적으로 메달 수확량이 저조했다.

여자 단거리 육상의 대들보 이연경(29·안양시청)은 아오터 주경기장에서 열린 여자 100m 허들 결승에서 13초23을 기록, 2위인 카자흐스탄의 나탈리아 이보닌스카야(13초24)를 0.01초차로 제치고 금메달을 따냈다. 한국 여자 단거리 트랙 종목 사상 첫 아시안게임 금메달. 한국 육상은 이로써 23일 여자 멀리뛰기 정순옥, 24일 남자 멀리뛰기 김택현에 이어 사흘 연속 금메달을 따냈다.

남자 10종경기에서도 김건우(30·문경시청)가 빛나는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국내에서 유일한 10종경기 선수인 김건우는 이날 10종목 합계 7808점을 얻어 드미트리 카르포프(카자흐스탄·8026점)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이 종목에서 아시안게임 메달을 딴 것은 1986년 서울 대회 박영준(동메달)에 이어 두 번째다.

남자 축구는 3~4위 결정전에서 이란에게 1-3으로 뒤지다 막판 3골을 몰아넣으며 4-3으로 역전승을 거두고 동메달을 건졌다. 공수도는 남자 67kg급 이지환(21·광주 상무실악)과 여자 55kg급의 안태은(20·양산대)이 동메달을 따내 8년 만의 메달 수확에 성공했다. 레슬링은 결국 노골드의 수모를 당했다. 이날 여자 자유형 48kg급 김형주가 동메달 1개를 추가했다.

남자농구는 준결승에서 일본을 55-51로 누르고 은메달을 확보했다. 한편 아시안게임 6연패에 도전했던 여자 핸드볼은 준결승에서 일본에 28-29로 발목을 잡혔고, 소프트볼도 준결승에서 중국에 1-7로 패해 동메달을 노리게 됐다. 3연패에 도전했던 남자 하키는 3~4위전마저 인도에 0-1로 패해 빈손으로 귀국하게 됐다.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끝내 노골드…한국 레슬링 쇼크

한국 레슬링이 충격의 노골드로 광저우 아시안게임을 마쳤다. 남자 그레코로만형과 자유형 14체급에서 금메달을 한 개도 건지지 못했다. 은메달 3개와 동메달 5개가 전부다. 한국 레슬링이 아시안게임에서 금을 못 딴 것은 1982년 뉴델리 대회 이후 28년만이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노골드에 이어 또 하나의 충격이다.

한국 레슬링의 추락은 불운과 작전 노출이 결합된 ‘비극’이었다. 당초 금메달 목표가 4개였는데 전라 체급에서 대진운이 최악에 가까웠다. 금메달이 유력했던 그레코로만형 55kg급의 최규진(조폐공사)이 1회전에서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 하미드 수리안 레이한 푸르(이란)를 만나 패한 것이 대표적이다. 대회 첫날부터 꼬이면서 나머지 선수들의 중앙감만 커져갔다. 대표팀 주장 정지현(삼성생명)이 은메달에 그친 것도 사기를 치명적으로 떨어뜨렸다.

대표팀은 그라운드보다 스탠딩 자세에 주력하는 전법을 설계해 아시안선수권 대회에서 특목대 재미(금 5개)를 뒀다. 그러나 아시안선수권에서 이런 작전을 눈여겨 본 경쟁국들은 스탠딩 자세부터 철저한 수비로 한국의 공격을 무력화시켰다. 다만 유일한 위안은 2012년 런던올림픽을 내다보고 육성하는 신진 선수들의 가능성을 확인한 대목이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부모 잃은 아픔이李커플을 맺어줬다

이연경 ♥ 이정준 ‘허들 연인’의 특별한 러브스토리

너무나 달랐던, 그 다음에 끌렸던 그들
혈육과 사별 고통 달래주며 사랑 확인
교제기간 성적 희비…이정준 AG 탈락
귀국후 곧 결혼…“이젠 함께 날아야죠”

한 선수의 성공 뒤에는 항상 변함없는 응원을 보내는 이가 있게 마련이다. 이연경(29·안양시청)의 금빛 질주 뒤에도 묵묵히 질책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버팀목이 있다. 그들의 사랑은 이미 육상계에서 유명하다. 비록 부상으로 아시안게임 출전이 좌절됐지만, 한국남자 허들을 이끌어 온 이정준(26·안양시청)이 바로 이연경의 반쪽이다. 허들커플은 이미 결혼을 약속한 사이. 아시안게임이 끝난 뒤에는 식을 올리고, 함께 더 큰 목표에 도전한다.

●‘아, 어머니’이연경이 채워 준 이정준의 반쪽

2005년 연말이었다. 그 해 겨울은 이정준에게 유난히도 추웠다. 위암으로 투병하던 어머니와 영원한 이별을 했기 때문이다. 태릉에서도 예민할 수밖에 없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날이 섰다. 그 날에 걸린 선수는 이연경이었다. 이정준은 “처음 몇 달 간은 서로 앙숙이었다”고 말한다.

이연경은 2005년 겨울, 처음으로 태릉에 들어와 이정준을 만났다. 그 전까지는 기본적인 인사만 주고받을 뿐, 살가운 대화 한번 해본 사이가 아니었다. 이정준은 “연경이가 좀 강해보이는 외모라서 처음에는 이성으로 느끼지는 못했다”고 했다. 이연경 역시 ‘까칠한’ 이정준에게 쉽게 다가서지 못했다.

이연경이 이정준의 집안일을 안 것은 시간이 좀 지나서였다. 배려가 담긴 말들이 오고갔고, 둘 사이의 오해도 서서히 풀렸다. 냉랭하던 이정준의 가슴 속에도 차츰 이연경의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이연경에

게서 마치 어머니와 같은 정을 느꼈다. 딱딱해 보이던 첫 인상을 접고, 그녀에게서 ‘여성’의 면모를 발견한 것도 이 때부터다. “연경이는 허들 말고는 아무 운동도 못해요. 운동시간이 끝나면 차분하게 책을 읽는 모습도 매력적이라고요, 아주 고상해요. 저는 활동적인데 말이죠.” ‘반대에게 끌리는’ 것은 딱 이 커플의 이야기였다. 2006년 5월28일, 태릉선수촌. 마침내 서로의 호칭에서 “누나”가 빠졌다.

●‘아, 아버지’ 이정준이 채워 준 이연경의 반쪽

도하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을 목에 건 이연경은 2007년부터 부진에 시달린다. 운동을 둘러싼 여러 갈등 때문에 선수생활에 대한 회의까지 느꼈다. 설상가상 2008년 봄, 이연경의 아버지가 간경화로 세상을 떠났다. 슬럼프는 깊어졌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이었다. 혈육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었다. 이정준은 장례까지 함께 치렀다. 그 때 둘은 확인한다. 평생을 함께 할 사이라는 것을… 하늘에 계신 장인어른과도 이미 인사를 한 터였다. 이정준은 그 때부터 이연경의 아버지 역할까지 도맡았다.

다른 육상 커플들은 운동 얘기를 잘 하지 않는 않지만, 둘은 달랐다. 평온하지만 하던 둘 사이에 말다툼이 잦아진 것도 이 때였다. “너는 더 잘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느냐”고, “더 마음을 굳게 먹으라”고. 이정준은 여자 친구에게 제책을 가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이연경의 가슴 속에 여전히 기록에 대한 열정이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아버지상을 치른 뒤에도 며칠 뒤에 몸을 만들어 종별선수권을 나가더라도, 저도 운동선수지만, 존경할 만 했어요. 그리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결심했지요.” 그리고 이연경은 2009년부터 부활의 발걸음을 내딛는다. 이정준은 “꼭 한창 잘 나가면 2006년



금메달이 확정되자 태극기를 크게 펼쳐두고 기뻐하는 이연경(위). 비록 함께 광저우에 오지는 못했지만, 그녀와 결혼을 약속한 남자 허들의 대들보 이정준이 누구보다 더 기뻐했을 듯하다.

광저우(중국) | 연합뉴스·스포츠동아·JB

의 눈빛으로 돌아왔다”고 회상했다.

●운동만은 었갈렸던 4년. 결혼 이후에는 함께 날고 싶은 소망

본격적으로 교제하던 4년 반의 시간 동안 둘의 희비쌍곡선은 엇갈렸다. 2007~2008년 이정준은 연이어 한국기록을 깨고, 베이징올림픽에서 장재근(서울올림픽 200m) 이후 20년 만에 육상트랙종목 1회전을 통과했다. 하지만 이연경의 기록은 하향세였다. 최근 2년간은 정반대다. 이연경은 날았지만, 이정준은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 10월, 림프선 이상을 발견해 현재는 휴식을 취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둘은 “그래서 더 좋았다”고 말한다. 그나마 서로를 보며 위안을 받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정준은 “요즘은 연경이가 용기를 많이 준다.

운동이 잘 안 돼서 의기소침할 때마다, ‘넌 아파서 그런 것 뿐’이라고, ‘다 털어버려라’고 말한다”며 웃었다.

둘은 오래전부터 결혼을 약속한 사이다. 하지만 아시안게임 준비와 동계훈련 등으로 차일피일 미뤘었다. 귀국 후 구체적인 결혼 논의를 할 계획이다. 이제 ‘진정 하나’가 되는 허들커플은 운동에서도 ‘기쁨의 순간’을 함께 할 날을 꿈꾼다. 이정준은 “결혼식을 올린 뒤, 일단 내년 세계선수권에서 세미파이널에 가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연경은 역시 “나이 많아 안 되고, 여자라서 안 된다는 편견을 다 깬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이제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이제 세계선수권과 올림픽에도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마음가짐을 새롭게 했다.

광저우(중국) | 전영희 기자 setupman@donga.com

육상 커플들은 ‘AG 기러기’ 이정준·이연경, 임희남·김하나, 지재형·정순옥

교제중인 세쌍 모두 한 선수만 아시안게임 출전



‘총알탄 커플’이 사랑의 결실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 육상 남녀단거리의 선두주자 임희남(왼쪽)과 김하나(25·안동시청)는 아예 날짜까지 잡았다. 12월12일 결혼식을 올린다. 임희남은 국가대표로 광저우를 발했지만, 김하나의 아쉽게도 대표팀에 승선하지 못했다.

스포츠동아·JB

2010광저우아시안게임 종료 이후 결혼을 준비하는 육상커플은 ‘남녀허들의 대표주자’ 이연경(29)·이정준(26·이상 안양시청) 뿐만이 아니다.

‘총알탄 커플’로 꼽히는 한국남녀단거리의 선두주자 임희남(26·광주광역시청)과 김하나(25·안동시청)는 아예 날짜까지 잡았다. 12월12일 결혼식을 올린다. 둘은 2005년 인천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합숙훈련을 하며 가까워졌고,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교제했다. 2009년 10월 한국그랑프리육상경기대회 때는 각각 남녀 100m에서 동반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임희남은 2010광저우아시안게임에도 단거리 대표로 출전했다. 하지만 2009전국체전 4관

왕과 MVP를 수상했던 김하나의 이번 아시안게임대표팀에 승선하지 못했다.

23일 여자멀리뛰기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이후 “지재형(26·문경시청) 사랑합니다”라고 외쳐 화제가 됐던 정순옥 역시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한 사이다. ‘그의 반쪽’ 지재형은 높이뛰기 선수지만, 국가대표팀에는 합류하지 못했다. 정순옥은 25일, “목표가 있어서 결혼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다.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이후에 결혼식을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3쌍의 육상 커플 모두, 공교롭게도 커플 중 한 선수만 광저우아시안게임에 출전했다.

12월25일 결혼식을 올리는 광저우아시안게임 양궁2관왕 윤옥희(예천군청) 등 국가

대표선수들은 보통 큰 대회 이후, 인륜대사를 치른다. 이정준은 “사실 큰 대회를 앞두고는 다른 일에 신경 쓰기가 힘들다. 운동선수들의 삶이 동계훈련·전지훈련 등으로 바쁘기 때문에 마땅한 날짜를 잡기 힘든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광저우(중국) | 전영희 기자 setupman@donga.com

▲광저우 아시안게임 특별취재반

스포츠동아=김도현 기자, 전영희 기자 (스포츠 1부)
동아일보=이승건 기자, 김성규 기자, 한우신 기자(스포츠레저부) 변영욱 기자(사진부)

편집 | 김재학 기자 ajapto@donga.com